

S MAGAZINE

색구슬로 다시 핀 연꽃

14 February, 2016 | 정형모

page 1 of 2



GALLERY

장-미셸 오토니엘 개인전: 검은 연꽃

2월 2일~3월 27일 서울 삼청동 국제갤러리, 문의 02-3210-9885

색구슬로 다시 핀 연꽃

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가 장-미셸 오토니엘(JM)은 자연을 명상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작가다. 특히 꽃은 작가의 영감의 원천이다. 작가는 말한다. "꽃이 담고 있는 의미나 상징성은 무척 매력적이다. 이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한다. 내게 있어 끊임없는 경이의 원천은 바로 실재하는 것들이다."

이번 한국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에게 영감을 준 꽃은 바로 연꽃이다. 정원에서, 그림에서, 조각에서, 옛 건축물에서 다양한 연꽃의 존재를 확인한 작가는 연꽃에서 느낀 정신성을 검정·흰색·보라·금색 등의 색구슬로 구현해낸다. 총 10점의 신작을 볼 수 있다.

글 정형모 기자 hyung@joongang.co.kr, 사진 국제갤러리

GALLERY 21



Purple Lotus, 130x120x120cm

